

碩士學位論文

自然染色을 이용한  
헤어裝身具 開發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炫 映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成 京 姬

2 0 0 5

自然染色을 이용한  
헤어裝身具 開發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炫 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년 월 일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工藝디자인專攻

成 京 姬

成京姬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5년 월 일

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 목 차

도목차 .....	iii
영문초록 .....	v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II. 이론적 배경 .....	3
1. 헤어 장식의 일반적 고찰 .....	3
1) 장신구의 의의 .....	3
2) 헤어 장신구의 역사 .....	4
2. 현대 헤어장신구의 동향 .....	26
1) 헤어장신구의 종류 .....	26
2) 현대 섬유소재의 헤어장신구 디자인 .....	29
3. 자연 염색의 일반적 고찰 .....	33
1) 염색의 기원과 종류 .....	33
2) 자연 염료와 매염법 .....	35
III. 작품 제작 및 설명 .....	41
1. 제작 의도 및 방법 .....	41
1) 제작 의도 .....	41
2) 제작방법 .....	42
2. 작품설명 .....	44
<작품 1> 사랑 I .....	44
<작품 2> 사랑 II .....	46
<작품 3> 그리움 .....	48

<작품 4> 제주의 四季 - 봄의 소리 .....	50
<작품 5> 제주의 四季 - 여름의 향연 .....	52
<작품 6> 제주의 四季 - 한라산의 가을 .....	54
<작품 7> 제주의 四季 - 겨울이야기 .....	56
IV. 결론 .....	58
<참고문헌> .....	60



## 도목차

<도 II-1> 고구려 안악삼호분벽화 .....	5
<도 II-2> 관자 .....	6
<도 II-3> 망건 .....	7
<도 II-4> 화관 .....	8
<도 II-5> 비녀 .....	10
<도 II-6> 첩지 .....	10
<도 II-7> 뿔잠 .....	11
<도 II-8> 뒤꽂이 .....	12
<도 II-9> 땡기의 다양한 디자인 .....	14
<도 II-10> 드림땡기 .....	14
<도 II-11> 뱃씨땡기 .....	15
<도 II-12> 이집트의 머리장식 .....	17
<도 II-13> 그리스의 머리장식 .....	18
<도 II-14> 로마의 머리장식 .....	19
<도 II-15> 비잔틴의 머리장식유형 .....	20
<도 II-16> 고딕의 머리장식 .....	21
<도 II-17> 르네상스기의 머리장식 .....	23
<도 II-18> 로코코시기의 머리장식 .....	24
<도 II-19> 19세기의 머리장식 .....	25
<도 II-20> 19세기 후반기의 머리장식 .....	26
<작품 1> 사랑 I .....	44
<작품 2> 사랑 II .....	46
<작품 3> 그리움 .....	48
<작품 4> 제주의 四季 - 봄의 소리 .....	50
<작품 5> 제주의 四季 - 여름의 향연 .....	52

<작품 6> 제주의 四季 - 한라산의 가을 ..... 54  
<작품 7> 제주의 四季 - 겨울이야기 ..... 56



A Study on Development of Personal Hair Ornaments  
Using Natural Dyeing

Sung, Kyoung-hee

*Industrial arts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Hyun-young*



In fashion, women's personal hair ornaments presentation gives change to their hair styles and is effective for showing personality like necklaces, rings, earrings, and other personal ornaments. As modern fashion styles become simpler, methods of various presentation by means of personal ornaments determine the whole image that completes the total clothes' styles and appearance image. So by giving change to simple parts, personal hair ornaments can complement simplicity, produce individual image and include symbolic elements, being effective for presentation of individuality

Therefore, the researcher keenly felt the necessity of studies supporting development of various materials and designs for personal hair ornaments proper for modern women's hair styles and customers' request. Hereupon, the researcher reused a scrap of cloth being dyed naturally by using boudoir formative arts of patchwork wrapping-cloth and grafted color sense and artistic value according to modern life styles and clothing culture onto personal hair ornaments. In such a way, the researcher made a personal hair ornaments' design embossing our traditional beauty in the Western personal ornaments.

I expressed a modern personal hair ornament with dyed cloth using natural dyes gained from natural plants, holding practicality and beauty of our traditional fiber technology by using the hemming and sewing methods of patchwork wrapping-cloth according to our traditional industrial arts.

Results I obtained through these studies and works are as follows.

First, I found that we can embody naturally dyed fiber's color and tactile in the personal hair ornaments' aesthetic formative form. The composed and elegant color sense approached to a new feeling of hair ornaments.

Second, I found that with our traditional industrial arts' formative beauty being harmonized with the design of Western personal ornaments, the hair ornament's function and aesthetic sense looked far better.



Third, natural color of hair and naturally dyed fiber's color sense harmonized beautifully, which enables me to recognize logic that natural things are the most beautiful ones.

Fourth, with change of social structure and diversification of life patters, designing hair ornaments proper for modern women's hair styles using the color sense of natural dyeing became possible.

Fifth, personal ornaments using natural dyes reflect Korean feeling fully and give friendly feeling and isn't behind any other foreign brands.

Sixth, natural dyeing has high artistic formative value, renewing our life styles and cultural consciousness. And by grafting traditional industrial arts onto modern ones, I could express new feelings and made expressions of excellence of natural dyeing and various areas of hair ornaments possible.

The result of these studie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not only hair ornaments but also designs of various areas using natural dyes. Accordingly, for development of designs and industrialization using these natural dyes, support of government and enterprises will be necessary.

## I. 서론

### 1. 연구 목적

여성이 자기 자신을 미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헤어 패션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헤어패션에서 헤어밴드, 헤어핀 등 헤어장신구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기타 장신구와는 달리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더욱이 여유로운 생활환경이 도래한 현대에 이르러서 헤어 장신구는 단순히 머리를 고정 시키거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토탈패션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헤어장신구의 사용은 패션 이미지를 조성하는 중요 요소로 옷차림에 변화를 주고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현대 패션의 형태가 점차 단순화되어 가면서 장신구에 의한 다양한 연출 방법이 전체 의복 스타일과 외모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총체적인 형태로 결정되어 진다. 따라서 헤어 장신구가 단순한 부분에 변화를 줌으로서 단조로움을 보완시키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며 토탈 패션을 완성시켜 준다.

오늘날 헤어 장신구는 대중성에 치우쳐 획일화된 디자인과 합성섬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웰빙의 열풍이 일면서 자연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천연 소재의 자연염색을 한 저채도의 색상과 고급스럽고 지루하지 않는 색감이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헤어는 사람의 신체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러운 장신구를 이용한 개성 있는 연출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현대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자연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 개발을 뒷받침

할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인의 자연주의적 기호에 발맞추어 천연섬유와 자연염료의 자연 친화성과 우아한 색감을 이용하여 현대인의 기호와 욕구에 부합하는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헤어 장신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장신구 중 헤어장신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장신구와 헤어장신구, 그리고 자연염색에 관하여 관련연구논문, 전문단행본, 정기간행물, 서적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작품제작 단계로서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연염색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과 다양한 작품을 한다.

구체적인 작품제작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 헤어장신구 중에서 헤어핀, 스카프 밴드(곱창), 헤어 띠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한다.
- 2) 염색은 자연염료인 홍화, 소목, 치자, 양파, 포도, 쪽, 검은 콩, 멥 등을 사용한다.
- 3) 주재료인 섬유는 명주, 모시, 무명으로 한다.
- 4) 부재료는 보석류와 특수 장식품을 이용한다.
- 5) 바느질 기법은 스티치, 패치워크, 감침질, 홈질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헤어 장식의 일반적 고찰

#### 1) 장신구의 의의

장신구(裝身具)란 신체의 일부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또는 끼는 장식품과 의복의 장식을 위해 붙이거나 매거나 또는 늘어뜨리는 소품을 지칭하며 그 외 장식 목적에 필요한 소구까지를 포함한다.<sup>1)</sup> 그 종류에는 허리띠, 팔찌, 반지, 귀고리, 목걸이, 노리개, 머리장식품 등이 있으며, 장신구의 기능은 인간의 원초적인 미적 의식을 나타내주는 장식적(裝飾的) 기능과 함께 악령을 퇴치하는 주술적(呪術的)인 기능, 그리고 부와 권력의 표시수단인 신분적(身分的) 기능이 있었다.<sup>2)</sup>

이러한 장신구는 인류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생활 수단 및 사회구조에 따른 변화와 함께 변천되며 발전되어 왔고, 시대가 바뀌어 의생활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변천하고 발달하였다. 또한 제도가 바뀌에 따라 장신구의 규제에 의하여 양상을 달리하고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

인간과 장신구, 이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장식의 본질이며 미적 개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사고(思考)를 형태 그 자체에 반영시켜 창의적인 관찰과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예술적상을 표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능적 또는 조각적, 회화적 의미로서 순수한 조형의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인간의 장식에 대한 동경은 기후, 풍토의 자연적인 조건과 정치, 사회, 경제, 중

1) 황호근, 「한국 장신구 미술 연구」, 일지사, 1976, p.18.

2)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복식 2000년사」, 1989.

교, 사상 등 인위적인 조건에 따라서 독특한 의식 구조로 조형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인격적 특성은 각 민족의 고유한 색채감, 미감각의 의식을 특징 지워 주고 있으며 이는 또한 장식미(裝飾美) 표현의 근원이 되고 있다.<sup>3)</sup>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기술의 발달은 장신구 생산을 공업화하여 대중적인 장식성과 시장성의 연구와 판매망이 확충되었으며 국제적인 문화의 교류는 장신구 디자인에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 형태의 많은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신구를 선택하는 미감각(美感覺)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으며 물질문명의 발달은 장신구 재질의 선택 범위를 광범위하게 만들었다.

자연재료인 금, 은, 보석류, 나무, 돌, 섬유, 깃털, 뼈이외에 유리, 합성수지등의 인공합성물질의 발달은 장신구의 재료를 다양하게 만들어, 장신구는 이들 재료의 단독 또는 복합사용으로 디자인과 재질감의 특징을 살린 복잡한 표현 양상을 가져왔다.<sup>4)</sup> 장신구의 장식과 활용은 착용자의 개성미의 표현과 장식욕구의 만족에 그 최고의 목적을 둔다. 그때그때의 유행에 맞추어 착용시의 장소, 분위기, 착용자의 감정 등으로 그 조형 범위가 결정되어진다.

## 2) 헤어 장신구의 역사

헤어 장신구의 역사를 보면 B.C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사이전 머리핀, 빗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소품들로 보아 원시인들도 머리손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석기시대 이전부터 장신구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헤어장신구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져 왔으며 그 시대의 생활의식과 사회적 위치로 알 수 있고, 계급이나 서열을 표시하거나 정신적인 측면 등 또한 종교의 일반적인 사상까지 나타내기도 하였다.

3) 손희정, “전통 문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 머리장식을 중심으로”,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3.

4) 김희영, “도재 목걸이 장신구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2.

5) Fiel Enterprises Educational Corproation, "Hair dressing," The World book Encyclopedia

## (1) 한국 헤어장신구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비녀를 사용해 왔다고 전해진다. 어떤 형태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금과 은이 머리장신구의 중요한 재료였으리라 여겨진다.<sup>6)</sup>



<도 II-1> 고구려 안악삼호분벽화

삼국시대 고구려의 머리장식은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도II-1>은 고구려 동수묘의 안악삼호분에서 나온 벽화로 고구려 왕족들의 머리장식이 화려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신라시대에는 빗이 머리장신구로 사용되었으며 빗 머리부분에 청옥을 박기도 하였고 조각을 내든지 금으로 장식하여 매우 화려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머리장신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비녀계와 갈라진 다리로 되어있는 차두를 사용하였다. 재료는 머리 부분은 순금으로 다리부분은 은제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머리부분에는 봉황, 닭머리, 꽃 등으로 장식되었다.<sup>7)</sup>

조선시대에 들어와 장신구의 발달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장신구 제작과 착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통이 서게 되었고 신체의 위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세분화되어지는 양상을 보여 복잡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분제(身分制)와 결부시킨 장신구 착용의 규제를 제도화함은 장신구 제작물의 차별화를 두어 정교하고 가치성이 높은 장신용품(藏身用品)들이 속출하는 계기를 마

6) 서지민, 「장신구사」, 연문사, 1986, p.109.

7) 황호근, 전계서, 1976, p.272.

련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사상이 강조되고 검소함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 태조 이후 태종, 세종 등 여러 왕대에 이르기까지 조관제복(朝官祭服)을 제정하여 점차 정리하여 가면서도 계속 유지되어 간혹 조선시대 부인들의 사치스러운 가체(假體-머리위에 남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큰 머리를 얹는 것)와 족두리, 화관과 같은 예장(禮裝)이 오랜 시일을 통하여 폐단과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규제에 대한 절목까지 작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목걸이·귀고리·팔찌 등을 착용하던 이전의 풍습은 거의 사라져, 머리 장식이나 노리개 등이 발달하는 조선시대의 특성이 나타났다.

### ① 조선시대 남성 머리 장신구

먼저 조선시대 남성들은 성인이 되면 상투를 틀었으므로, 머리를 정돈하기 위한 장신구가 발달하였다.



<도 II-2> 관자

그 예로 관자(貫子), 풍잠(風簪), 동곳 등을 들 수 있다. 관자는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마에 두르는 망건(網巾)의 귀 부근에 달아, 망건을 고정하는 끈인 당줄을 걸어 맬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역할과 함께

관품(官品)을 나타내는 구실을 했다(도II-2). 금(金)이나 옥(玉)으로 만든 관자는

정3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이 사용하는 것으로, ‘금관자 서슬에 큰 기침한다’는 속담은 나쁜 짓을 하고도 벼슬 높은 것을 유세로 도리어 큰소리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관자가 신분 상징으로 이용된 모습을 보여준다. 문양을 넣는 경우에는 댓잎[竹葉], 매화, 연꽃 등의 꽃문양이나 학, 박쥐 등의 동물 문양이 쓰였다.

풍잠은 망건(도Ⅱ-3)의 앞, 이마 쪽에 달아 갓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동곳은 상투가 풀어지지 않게 정수리에 꽂아 고정시키는 것으로 여성의 비녀[簪]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신분에 따라 만드는 재료에 차이를 두기는 했으나 관품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도 Ⅱ-3> 망건

이 밖에 사대부의 대표적 관모(冠帽)인 갓을 꾸미는 것으로 정자(頂子)와 입영(笠纓)이 있다. 색과 형태가 비교적 단조로운 갓을 장식하는 동시에, 장식의 재질로써 백관(百官)의 품계(品階)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갓의 정수리 부분에 달아 장식하는 정자는 직위에 따라

금, 은, 옥, 수정(水精) 등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 옥으로 해오라기를 조각한 것을 옥로(玉鷲)라 한다. 갓끈을 의미하는 입영은 상아(象牙), 마노(瑪瑙), 산호(珊瑚), 대모(玳瑁) 등으로 만들어 갓에 달아 가슴 밑으로 길게 늘어뜨려 멋을 내는 중요한 장신구의 역할을 하였다.



## ② 조선시대 여성머리 장신구(금속)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몸을 단장하고 그 매무새를 한층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꾸민 몸치장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 용품들이 있었다. 신체 장식품인 귀걸이와 지환, 몸에 치장하는 장식품인 패물류(佩物類)의 노리개와 주머니, 옷을 여미기 위한 단추, 머리를 치장하는 수식(首飾)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머리가 큰머리 어여머리, 엷은머리, 조짐머리, 쪽머리, 귀밑머리, 새양머리등 신분에 따른 헤어장신구가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에는 뒤꽂이, 떨잠, 머리꽃이, 화관(도Ⅱ-4), 족두리, 첩지, 비녀, 땡기, 비치개 등이 있다.



<도 Ⅱ-4> 화관

쪽진 머리가 일 반화되면서 비녀의 사용이 다양해 졌으며 여러 가지 형태와 종류가 나타내게 되었다. 비녀는 부인들이 쪽진 머리에 꽂는 장신구로서 한쪽 끝이 뭉툭하여 빠 지지 않게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와 문양으로 장식하였다.<sup>8)</sup> 비녀에는

꽂는 이의 넋을 모으는 미덕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내면세계를 반영하는 화장기구

8) 이영입, “길상문양을 상감한 여성 휴대용 금속공예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4.

로 여겨졌다. 그래서 여성이 비녀를 잃거나 빼면 정절이나 금지를 잃음을 상징했다. 또한 비녀는 입과의 정표를 상징하였고 즉 기혼자만이 꽃을 자격이 있다.<sup>9)</sup>

비녀의 유래는 매우 오래되어 신석기 시대의 유적인 농포동패총에서 사슴의 뿔로 만든 비녀 2점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석기 시대에 이미 비녀의 사용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중보문헌비고에는 단군이 다른 사람에게 편발하고 개수(蓋首)하는 법을 가르쳐 머리의 수발을 하게 되면서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한 비녀도 발달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통일 신라 시대의 진골녀는 채에 누각하거나 철주하는 것을 금하고, 육두품녀는 순금 사용을 금하였으며 평인녀에게는 유석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 흥덕왕 복식 금제에 나오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형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비녀의 재료 사용에 따른 신분차 등의 규제가 있었으며 다양한 비녀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비녀의 재료는 금, 은, 백동, 놋쇠, 옥, 뿔, 대나무, 박달나무 등을 몸체로 사용하였고, 잠두는 산호, 진주, 유리, 칠보 등으로 장식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존비귀천의 차별이 심하여 금은주옥으로 만들어진 비녀는 상류계급이나 사용할 수 있었고, 서민층 부녀자들은 동, 백동, 놋쇠, 나무, 뿔, 뼈 등으로 된 비녀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sup>11)</sup> 비녀머리를 용(龍), 봉황(鳳凰), 매화와 대나무 등의 문양을 사용하여 다채롭게 꾸몄다(도Ⅱ-5).



<도 Ⅱ-5> 비녀

9) 허동화, 「우리가 알아야 할 규방문화」, 현암사, 1998, p.314.

10) 장숙환, 「전통 장신구」, 대원사, 2002, p.26.

11) 김태정,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2000, pp.46-47.

첩지는 부인이 예복을 입을 때 머리 위에 꾸며 품위를 돋보이게 하던 장식품의 하나인데, 영조의 발제개혁 이후 없은머리 대신 쪽진머리를 하게하고 여기에 족두리를 하게 한데서 시작된 것이다(도Ⅱ-6). 이것은 장식의 목적과 족두리나 화관 같은 것을 쓸 때에 걸려서 고정시키게 하기 위한 역할을 겸하였다.



<도 Ⅱ-6> 첩지



첩지는 머리가 되는 앞부분의 장식만 다를 뿐 5~8cm 길이의 동체는 모두 수평을 이루고 꼬리부분만 날씬하게 위로 향한 모습이다. 동체의 재료는 은과 흑각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은에 금도금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첩지는 동체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받침대 위에 얹고 받침대 양쪽으로 다리를 붙여 사용하였다. 받침대 중앙에 올려놓는 첩지는 머리 앞부분과 중앙, 꼬리부분 등 세 곳을 다홍색실로 5~7번 정도 떠서 고정시키며 받침대는 검정색 천으로 감싸고 다리는 양쪽 끝 부분만 조금 땅아 땀기를 드러놓아 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다. 첩지의 머리 장식은 신분에 따라 황후는 용, 비와 빈은 봉황, 내명부와 외명부의 여자 관리들은 개구리 모양을 조각한 첩지를 사용하였다.

떨잠은 일명 ‘떨철반자’ 라고도 하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머리 장식이다(도Ⅱ-7). 왕비를 비롯하여 상류 계급에서 어여머리나 큰머리의 중심에 꽂는 나비모양의 선봉잠과 양편에 하나씩 꽂았던 꽃는 사각 또는 둥근 모양의 반자의 화려한 장식품이다.



<도 II-7> 뿔잠

뿔잠은 지름 5cm 정도 크기의 투각된 장식판에 원형, 각(角)형, 나비형 등으로 조각하여 판을 만들고 그 옥판 위에 진주, 산호, 비취, 청강석, 칠보 등을 거미발로 물리고 가는 은사로 용수철을 만들어 그 한 끝에 은으로 만든 벌, 나비, 봉(鳳)모양의 뿔새를 매달아 고정시켜 놓은 납작하게 생긴 머리 장식품이다. 뿔잠의 옥판에 세운 용수철 기둥은 3~5개 정도며 길이는 4~7cm이다.

또한 어여머리나 큰 머리에 꽃을 수 있도록 옥판 밑에 동(銅)으로 만든 납작하고 뾰족한 칼 모양의 꽃이를 부착하였다. 뿔잠은 착용자가 몸을 움직이거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옥판 위 용수철에 매달린 뿔새가 저절로 하늘하늘 떨리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며 특히 용수철 위에서 흔들리는 뿔새(벌, 나비, 봉)의 동적인 모습은 한층 더 우아하며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인다.<sup>12)</sup>

뒤꽂이는 비녀 이외의 쪽진 머리 뒤에 덧꽂는 수식물을 모두 총칭하는 말이다(도II-8). 그리고 뒤꽂이는 머리 장식품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쪽에서 손쉽게 뽑아 쓸 수 있는 실용성에 덧붙여 머리에 장식함으로써 자신을 보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꾸몄던 것이다.

12) 김태정, 전계논문, p.53.




 <도 II-8> 뒤꽂이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뒤꽂이의 유래는 비녀와 맥을 같이 하는데, 재료로는 주로 은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중심에는 보석알을 물려 장식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뒤꽂이는 그 기본형이 장식부(裝飾部)와 첨부(尖部)로 나누어지는데, 장식부는 머리바깥쪽에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첨부는 머리에 꽂혀지는 부분으로 끝이 가늘고 길며 뾰족하다.<sup>13)</sup>

우리나라에서 유물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머리 뒤꽂이는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금제 뒤꽂이로 삼각형의 머리부분과 세 가닥의 다리부분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하고 있는데, 세 가닥의 다리 부분은 새 꼬리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얇은 금판을 사용하여 타출기법으로 화형(花形)과 당초문을 나타내었고, 그 문양에서 느낄 수 있는 성격이 온화하고 백제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13) 장숙환, 전통 장신구, 대원사, 2002, p.43.

그 종류로는 머리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반 뒤꽂이와 첨(尖)을 비롯하여 실용성을 겸한 빗치개 뒤꽂이, 귀이개 뒤꽂이 등이 있었다. 이것도 비녀와 마찬가지로 궁가(宮家), 반가(班家), 서민들 사가(私家)의 품위에 따라 조형적 차별과 재료의 우열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국화모양의 장식이 달린 것, 연꽃 봉오리 모양을 한 것, 매화, 나비, 천도, 봉황 등의 모양을 장식한 것들이 있었으며 산호, 비취, 보석, 칠보, 진주 등을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게 만들었다.

빗치개는 가르마를 갈라 머리를 정제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밀기름을 바르는 도구도 되었다. 대개 빗이나 빗집, 면경, 쪽집개, 살쩍밀이, 분통 등과 함께 경대에 간직해 두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쪽진머리에 꽂아 머리를 장식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다.

### ③ 조선시대 여성머리 장신구(섬유)

댕기는 머리를 묶는데 사용되는 형겍으로 금박을 찍거나 수를 놓았고, 옥이나 석용황 등의 보석을 붙여 화려하게 만들었다(도Ⅱ-9).



<도 Ⅱ-9> 댕기의 다양한 디자인



<도 II-10> 드립땡기

에 달려있어 머리를 묶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땡기는 다양한 용도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 <도II-10>은 혼례 등 예장을 할 때 드리는 드립땡기로서 비녀의 좌우에 감는데 중앙에 있는 금박부분은 쪽부위에 양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금박부분은 비녀에서 어깨에 오도록 늘였고, 땡기의 끝에는 진주나 산호구슬을 장식하였다.

아래 <도II-11>에 있는 뱃씨땡기는 홍색 용받침에 화문이 새겨진 은제천도형 장식이 붙어있고, 홍색 용으로 만든 끈이 양편



<도 II-11> 뱃씨땡기

#### ④ 장신구와 문양

조선시대 장신구에 많이 나타나는 식물 문양 중 매화, 국화, 대나무는 유교 사상의 충효(忠孝) 및 절개(節概)를 상징하는 것으로, 남녀 장신구에 모두 애용되었다. 국화는 천도(天桃)·십장생(十長生) 문양과 더불어 장수(長壽)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모란은 부귀(富貴)를,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 고고한 꽃을 피워 선비를 상징하는 동시에 씨가 많아 자손 번성의 의미를 갖는다. 동물 문양 가운데 학·해오라기 등은 기품있는 선비의 상징으로, 박쥐는 한자 명칭인 편복이 복(福)과 발음이 같아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등장하며, 용·봉황 등은 왕실의 상징으로 일반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밖에 꽃과 나비 또는 새가 어우러져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여 비녀와 뒤꽂이 등 여성장신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듯 우리 전통 장신구를 살펴보면 단순한 장식이 아닌,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충효(忠孝) 및 절개(節概)의 표현, 부귀(富貴)·장수(長壽)·부부 화합·자손 번성·벽사에 대한 기원 등 다양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화기에는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1930년대부터 파마가 등장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 서구의 파마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한국여성의 머리가 점차 변화하여 비너나 뒤꽂이 등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70년대 후반 이후로 젊은 여성들의 간편하고 손질이 쉬운 헤어스타일에 따른 헤어장신구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유행 변화에 따라 개인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장신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 (2) 서양헤어장신구의 역사

고대헤어장신구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어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 ① 고대헤어장신구

이집트인의 예술은 상징적인 것으로 이를 복식에도 표현하였는데, 우아하게 비치는 드레이프한 의복이나 거대한 가발과 머리장식, 신체의 곳곳에 착용한 금속 장신구 등은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집트인은 두껍고 뾰뾰한 형겼으로 만든 피라미드 모양의 머릿수건을 썼는데, 이를 커어취프(kerchief)라고 한다. 왕이나 여왕이 쓴 커어취프(kerchief)는 클라프트(klaft)라 했는데, 이것은 황금색과 청색의 줄무늬가 있으며 머리에 돌려쓰고 양 옆자락을 앞으로 늘어뜨린 모양이다. 또한 카우혼(cow horn)은 청색 가발을 쓴 머리 위에 적색 둥근판을 휘어잡아 세우고 둘레에는 초록색으로 사슴 뿔 같이 만들었으며 앞에는 살아있는 뱀 모양을 붙였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냈었다.

정교한 머리장식에는 청동이나 금, 나무 등으로 만든 약 20cm 정도의 머리핀과 딱딱한 나무, 뼈 등으로 만든 빗을 사용하였다. 이것들은 장식적인 것보다는 머리를 빗거나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외출시에 상류계급의 여성들은 용모를 갖추기 위하여 머리 위에 금이나 홍옥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이상과 같이 이집트인들의 머리형태와 머리장식은 정교한 것이 많았으며 그 형태와 재료에 따라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네페르티티 (B.C. 1350-1340)



클라프트와 인공수염



머리핀과 빗



제주대학교 조아드서과  
 <도 II-12> 이집트의 머리장식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초기 그리스 여인들은 앞머리를 곱슬거리게 쉼을 하고 옆에는 작은 고리 모양을 만들었으며, 뒷머리는 그대로 늘이거나 목에서 자유롭게 묶는 등 간단한 형태가 유행했다. 머리 위에는 금속이나 리본으로 만든 좁은 띠를 두르거나 화관을 썼다.

후기에는 점차로 머리 형태는 정교하고 화려해져 기원전 4세기경에는 긴머리를 목덜미 위로 올려 시농을 하고 이것을 여러 색깔의 스카프 혹은 금실로 짜서 그 사이 사이에 진주를 끼어 만든 그물로 썼다. 그 외 머리핀과 베일도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 핀은 상아나 금속으로 약 10~12cm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금박을 입히거나 보석을 박아서 뒤로 모아진 머리 위에 꽂았다. 베일은 마, 비단, 모 등으로 만들었으며 백색이 가장 많이 쓰였다.



<도 II-13> 그리스의 머리장식

당시 귀족부인들은 보석으로 장식된 관 티아라(tiara), 스테판(stephane : 머리 앞쪽에 초생달 모양의 관을 쓰고 천을 드레이프시켜 머리를 감싸는 형태), 디아템(diadem) 등을 이마 위에 높이 써서 상아나 나무로 만든 빗을 머리 뒤에 꽂거나 좁은 끈으로 고정 시켰다. 또한 테라코타라고 하는 관이 높은 모자를 썼는데 이것도 금으로 만든 긴 핀을 머리 뒤에 꽂았다.

이상과 같이 그리스인들의 머리형태는 자연스러움과 우아함을 지닌 근대적인 것으로 후세인들의 머리형태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머리에 쓴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관도 로마, 비잔틴의 여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로마인들의 머리형태와 머리 장식은 그리스와 거의 유사하나 이보다 복잡하였다. 머리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단순한 형에서 복잡한 형으로 다양하게 변화했다. 머리장식으로는 그리스 여인들이 사용하였던 것과 비슷한 스테판(stephane), 디아템(diadem) 등을 더욱 장식하여 썼으며, 이 외 진주나 금속세공을 한 띠, 또는 보라색이나 적색의 천으로 만든 띠를 머리 위에 둘렀다. 그 외에 아름답게 장식한 빗이나 핀을 꽂았으며 때로는 망으로 싸기도 했다.

당시 여성들의 중요한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던 금이나 은, 상아 등으로 만든 핀 끝에는 비너스나 큐피드, 또는 그 외의 형태를 만들고 그 속에는 향수를 넣었다.

이상과 같이 머리형태와 머리장식의 다양함은 고대 로마인들이 그들의 미적 감

각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II-14> 로마의 머리장식

## ② 중세헤어장신구

비잔틴 시대인들은 8세기 이후 머리를 감싸는 형이 주를 이루어 머리 자체의 형태보다는 부드럽고 얇은 천에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술을 단 베일을 붙여 뒤로 늘어뜨리고 금속밴드로 관처럼 써서 고정시키는 등의 수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머리장식은 주로 귀부인에 한하였으나 비잔틴 여인들의 가장 중요한 장신구가 되었고 화려한 장식의 의상과 잘 조화되었다.

9세기부터 원형의 베일을 쓰기도 하였는데 베일을 고정시키는 밴드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게 되었다. 베일의 형태는 삼각형, 사각형으로 어깨나 허리 혹은 발끝까지 오는 것 등 다양하였고, 색은 주로 흰색이었고 때로 붉은 보라색을 쓰기도 했다. 보석이 박힌 금밴드는 최상류계급을 나타내고 차례로 금밴드, 은밴드, 최하류계급은 형짚밴드를 하였다. 금밴드 외에 베일의 앞에 브로치를 고정시키거나 목에 두르기도 하였고 보석관을 쓰기도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도 II-15> 비잔틴의 머리장식유형

10세기 말 상류사회의 여성들은 긴 머리를 좋아하여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며 때로는 길게 뿔아 뒤로 늘어뜨렸다. 머리 위에는 그리스, 로마 여인들이 사용하였던 관에 더 많은 보석을 장식하여 썼다. 수식으로는 보석으로 만든 머리띠와 빗도 장식품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테오도라(Teodora) 왕비는 금과 진주로 장식한 관을 썼다. 또한 금으로 만든 장식 빗도 있었다.

로마네스크 시대는 비잔티움의 영향을 받아 앞가리마를 타서 머리를 두 가닥이나 세 가닥으로 뿔아 길게 내려뜨린 형태가 주를 이루었는데, 자신의 머리 외에도 가발이나, 리본으로 감아내려 거의 발까지 닿을 정도로 타래를 드리웠다.

이 베일은 여러 색깔의 모, 마, 면 등으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사용했는데 특히 상류계급의 부인들은 비치는 베일에 금이나 은 등의 금속을 붙여 번쩍거리게 했다. 이 베일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머리 위에는 여러 가지 띠를 둘렀는데 이것은 계급에 따라 보석, 금, 은, 면 등으로 만들어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었다.

고딕시대는 14세기로부터 의복이 전 보다 점차 화려해지고 복잡해짐으로써 머리형태와 머리 장식에도 새롭고 과장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여자의 머리형태와 장식은 고딕 시대에 본격적인 발달을 보이게 되었다.

15세기에는 양쪽 귀 위에 원통형이나 원추형 또는 바퀴 모양으로 크게 부풀린 머리 장식은 형태가 변하여 상자 모양이나 피라미드 모양 등으로 얼굴 양옆에 꼭 맞도록 붙였으며 머리 위에는 가벼운 천으로 만든 백색 베일을 써서 핀으로 고정시켰다. 점차 이러한 머리장식은 1440년부터 더욱 강화되어 머리카락은 위로 높이 빗어 넓은 머리띠로 단단하게 고정시킴으로써 눈썹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얼굴은 상아나 고분의 조각 같았다. 또한 머리의 옆과 뒷부분은 호화롭게 장식된 템플러(templer)에 넣고 머리 위는 심을 넣어 만든 둥근 롤을 중앙에 내려오게 하거나 보석으로 장식된 핀을 써서 화려함과 동시에 넓은 이마와 목의 아름다운 선을 나타내었다.



<도 II-16> 고딕의 머리장식

15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상류계급의 여성들간에는 넓이와 높이를 강조시킨 특징적이고도 과장된 머리장식으로 에스커피온(escoffion)과 에넵(hennin) 등이 생겨났다. 에스커피온(escoffion)은 넓이를 강조시킨 것으로 머리는 양쪽 귀 위에서 망으로 싸 금속 통 속에 넣었으며 머리 위 양쪽에는 가벼운 천에 풀을 뺏뺏이 먹이고 철사를 대어서 뽕족한 뿔 모양을 두개 만들어 붙이고 높이 솟은 뿔 끝에는 비단이나 얇은 실로 만든 베일을 붙여 뒤로 늘어뜨렸다. 이 때 뿔 사이의 넓이는 90cm 정도였다. 또한 에넵(hennin)은 고딕시대 여성의 가장 특징적인 모자로서 에넵(hennin) 부인이 고안해낸 것으로 고딕 건축의 뽕족함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데 딱딱한 천으로 원추형의 모자를 만들고 그 위에 원형의 베일을 덮어 옷자락까지 늘어뜨렸는데 그 길이가 300~360cm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 ③ 근대헤어장신구

르네상스 시기는 여러 가지 색의 가발이 사용되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뒤로 모아 끈으로 묶거나 여러 가지 색의 머리띠, 화환을 사용하였다. 터번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벨벳이나 비단으로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 진주, 브로치, 깃털 등을 장식하였다. 또한 보석이나 진주로 장식된 본넷, 섬세한 레이스가 달린 린넨이나 벨벳의 후드 등 남자보다 값비싼 모자를 썼으며 이마 위가 수평으로 되어 있고 뒤쪽이 드리워진 것이 특징인 바볼레(bavolet)나 깃털 장식이 달린 토크도 있었다.

이 시기에 사용된 머리핀은 디자인의 다양함에서 뛰어난 창의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선으로 된 핀은 동·식물의 문양과 보석으로 장식된 정교하고 화려한 핀과 병행하여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sup>14)</sup>

14) 이주현, “귀금속 헤어장신구 디자인 연구 : 인터넷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9.



여성의 머리형태  
(1480-1493년)



여성의 머리형태 (1522년)

<도 II-17> 르네상스기의 머리장식

세기말에 이르러 예술과 건축, 문학, 복식면에 새로움과 창조성을 띠었던 르네상스는 끝이 나고 더욱 화려하고 장식적인 새로운 감각으로 바로크 시대가 시작된다.

17세기 초에 대형의 러프나 부채형의 세운 칼라가 유행할 때 머리모양은, 머리 속에 가발을 넣고 포마드로 굳혀서 높이 빚어 올린 후에 보석과 진주로 장식된 아름다운 핀을 꽂았다. 곱을 한 머리를 더욱 풍부하게 보이도록 머리 위에 리본을 장식하기도 하고 새털을 달기도 하였다. 1650년대에는 금, 은, 철사와 빗, 가발 보석, 꽃, 레이스, 깃털 등을 사용하여 양 옆으로 머리를 불룩하게 하거나, 타래머리를 사용해서 곱 된 머리가 술이 많아 보이게 하는 머리형이 나타났다. 머리 위에는 커다랗게 리본을 매기도 하고 양쪽에 타슬처럼 가지런히 달기도 하였다.

풍탕주는 백색마 또는 레이스에 풀을 뺏뺏이 먹여서 앞면에는 반 접은 부채모양으로 주름을 잡고 이것을 두 개 또는 세 개의 단을 하여 머리 위에 높이 써서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박은 핀을 꽂은 것으로 점차 형태가 변하여 캡 둘레에 좁은 주름을 잡기도 했다.



18세기 초에는 중국을 통해 전 유럽에 전파되어 군인들의 머리형이 되었던 단정하고 편리한 땡은 머리가 일반인에게 보급되었다. 또한 머리의 높이를 낮게 하고 뒤에서 한 묶음으로 리본을 매거나, 이 외에 옆머리를 짧게 잘라 비둘기 날개형이나 켈로 다듬고 뒷머리는 크라포(crapaud)라 부르는 검은 타프타 주머니에 넣어 그 윗 끝을 끈으로 조이고 나비 묶음을 한 머리형도 있었다. 땡은 머리카락이나 주머니 가발, 리본을 그대로 앞으로 돌려 크라바트의 리본으로 묶어 다이아몬드 핀으로 고정시켰다.



여성의 보닛 (1780년)



칼라쉬 (1788년)

<도 II-18> 로코코시기의 머리장식

18세기 초까지는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풍탕주형이 전성을 이루었으나 루이 14세가 사망한 후 풍파두르(pompadour)형이라는 낮은 머리형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 형은 머리카락을 부풀이지 않고 뒤로 빗어 넘긴 우아하고도 깔끔한 머리형으로 때로는 머리 위에 조화나 다이아몬드, 진주 등의 보석을 박은 리본이나 조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머리핀, 레이스 캡, 깃털 등의 섬세한 장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패션의 특징은 모든 매력의 초점이 머리로 옮겨졌다는 것이

다. 이 시기는 남녀노소 모두 항상 모자를 착용하였고,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19세기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크고 과도한 머리장식은 주얼리 디자인의 형태와 기능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풀린 머리를 풍성하게 고정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머리핀과 정교한 머리빗, 머리에 모자를 고정시킬 수 있는 핀 등이 디자인되었다.



<도 II-19> 19세기의 머리장식

1837년경에는 자연스러운 머리가 유행되었다. 가르마를 타서 관자놀이로부터 부드럽게 내려 여러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관자놀이와 귀를 덮기도 하였으며 땅거나 꼬아서 보석이 박힌 빗과 핀을 꽂았다. 1840년대 이후에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양쪽에 소시지 컬(sausage curl)이라는 귀를 덮고 뒤통수에는 둥글게 뒷머리를 말아 붙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여기에 꽃을 달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 외 깃털, 조화 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망을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19세기에 이어 20세기 초에는 초생달, 별, 나비, 조그만 새 등의 장식을 중심으로 하여 구부린, 끝이 뾰족한 U형핀이 머리를 고정시키고 장식하는 데 쓰였다.<sup>15)</sup>

15) 상계논문,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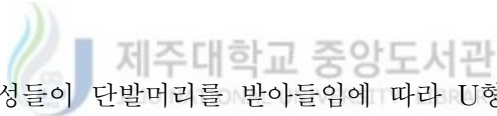


여성의 머리장식품 (1848년)



여성의 모넛 (1880년)

### <도 II-20> 19세기 후반기의 머리장식



20세기 중엽, 여성들이 단발머리를 받아들임에 따라 U형핀과 뒤로 등장한 실핀이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실핀은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실핀은 2인치정도의 길이로, 탄력성이 좋아서 머리를 깔끔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현대에는 자연스럽게 활동에 편한 머리형이 다양한 길이로 유행하면서 실핀, 빗핀, 잠그는 핀 등이 필요에 따라 장식을 위한 것에서 기능적인 용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2. 현대 헤어장신구의 동향

### 1) 헤어장신구의 종류

머리나 모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 예전에는 모자의 부속품처럼 여겨졌으나, 요즘에는 독립적으로도 충분한 패션성을 갖고 있으며 머리형태에 따라 그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하다.

## (1) 곱창밴드 헤어장신구



곱창밴드는 머리를 뒤에서 묶는 장신구로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현대인에게 애용되고 있는 헤어장식품이다. 이는 편리성과 유행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다. 곱창밴드와 유사한 머리 장식으로 리본, 시농, 헤어넷 등이 있다.



리본(Ribbon)은 머리를 묶거나 모자의 크라운을 두를 때 사용하는 끈이다. 위치나 방법에 따라 스포티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드레시한 느낌도 난다. 때로는 수를 놓거나 보석을 넣어 장식하기도 한다.

시농(Chignon)은 머리를 뒤에서 묶고 덧붙이는 장식이다. 최근에는 짧은 머리를 업스타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머리모양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것에 따라서 이미지도 변화한다.

헤어 넷(Hair Net)은 머리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정돈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모양의 것을 말한다. 견, 나일론 등으로 만들어지고 장식용은 색이 화려하고 진주나 모조보석을 장식하기도 한다.

## (2) 띠 헤어밴드 장신구



머리를 정리하는 띠로서 니트나 가죽 등으로 만들어지며 양쪽 귀를 덮어 보온용으로 쓰여지는 것도 있다. 요즘은 플라스틱의 사용도 많아지고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헤어밴드를 보면, 패브릭 소재부터 스판, 스팅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스포티한 모습을 표현하도록 디자인되고 있다.

### (3) 헤어핀 헤어 장신구

머리장식 중 가장 단순한 것으로, 주로 U자형의 이중 잠금으로 되어있다. 원래는 모자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요즘은 액센트용 액세서리로도 많이 쓰인다.

#### ① 잠그는 핀



머리핀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머리를 땡거나 묶을 때, 또는 옆머리, 뒷머리를 고정시킬 때 쓰이며, 크기는 옆머리에 꽂는 2cm정도의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머리다발 전체를 올려 고정시킬 수 있는 10cm가 넘는 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 a. 도아핀형: 제 몸체를 구부려 탄력성을 이용하여 잠그는 핀이다.
- b. 걸쇠핀형: 철사로 된 걸쇠를 머리핀 뒷면에 부착시켜 잠그도록 되어 있다.

#### ② 실핀

구부려 붙인 금속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형인데 옆머리에 주로 사용하며 머리를 올릴 때 여러 개를 함께 쓰기도 한다. 실핀의 길이는 보통 4~5cm이다.

- a. 기본형: 아무런 장식이 없는 본래의 실핀이다.
- b. 끝장식형: 기본형 실핀의 한쪽 끝에 조그마한 장식을 붙인다. 장식의 형태에는 꽃, 나뭇잎, 과일, 동물, 곤충, 글자, 별모양 등이 있다.
- c. 전체장식형: 실핀의 앞면 전체를 장식한 것이다.

### ③ 집게 편



집게편형은 머리 고정도구의 일종으로, 용수철이 달린 클립으로 머리를 집어 고정하는 것으로 헤어클립의 형태를 응용하여 만든 형태로 용수철의 탄력을 이용하여 머리를 고정시키며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하여 젊은 여성에게 많이 애용된다.

### ④ 뒤꽂이 편

긴 막대기 모양의 머리장식으로, 비녀와 비슷한 형태로 주로 긴 머리의 올림머리에 꽂아 장식한다.

## 2) 현대 섬유소재의 헤어장신구 디자인

### (1) 헤어장신구 디자인동향

#### ① BURBERRY의 헤어장신구



##### ㉠ BURBERRY 헤어 슈슈 HAIR LGCRUN 1

소재 : 면/합성소재

규격 : 폭 5cm

색상 : 노바체크

클래식한 디자인의 버버리의 헤어 악세사리로서 버버리의 체크 패턴을 사용하여 특유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돋보인다. 노바체크의 면소재 헤어끈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감각으로 표현되었다.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며 폭이 넓다.

㉠ BURBERRY 헤어 슈슈 HAIR LGSCRUN 2

소재 : 면/합성소재

규격 : 폭:5cm

색상 : 노바체크(핑크)



버버리의 체크 패턴을 사용하여 특유의 클래식한 분위기의 세련된 스타일로 핑크컬러가 돋보인다. 노바체크의 면소재 헤어끈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감각으로 표현되었다.

㉡ BURBERRY 헤어밴드 1

소재 : 플라스틱



버버리의 노바체크를 사용한 클래식한 분위기의 헤어밴드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깔끔한 느낌을 준다. 얇은 폭의 헤어밴드가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머리에 조이는 느낌 없이 편안하며 안쪽에 조그만 톱니가 있어서 잘 벗겨지지 않는다.

㉢ BURBERRY 헤어밴드 2

규격 : 폭 6cm

소재 : 면, 합성소재



버버리의 노바체크 패턴을 사용하여 특유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면소재 헤어밴드로서 깔끔한 넓은 밴드가 고급스럽고, 머리에 조이는 느낌 없이 편안하며 헤어밴드 안쪽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



㉔ BURBERRY HAIR PIN

색상 : 베이지체크

소재 : FABRIC

사이즈 : 9.5cm X 4cm

베이지의 체크 헤어핀으로 감쪽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자동핀이며 뒷면은 스웨이드로 마감 되어 있다

㉕ BURBERRY HAIRPIN0 PINK

사이즈 : 11cm X 1.8cm

COLOR : PINK

소재 : FABRIC

전체적으로 고유 버버리 패턴으로 되어 있고 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② Etro의 헤어장신구

㉑ Etro 헤어핀

색상 - 블랙

소재 - 스웨이드

사이즈 - 6.5\*2.7cm



블랙의 스웨이드 소재로 페가수스 장식이 포인트이다. 뒷면도 스웨이드 소재이고 고무줄끈으로 사용이 간편한 실용적인 제품이다.



㉠ Etro 헤어핀

\* 색상 : Brown

\* 소재 : 패브릭

\* 사이즈 : 9X2cm

\* 핀대길이 : 6cm



페이즐리 문양의 패브릭 소재로 리본 모양의 디자인이 큐트한 에트로 헤어핀이다.

㉡ Etro 2.2cm 헤어밴드

색상 : 모카

소재 : 패브릭+스웨이드

사이즈 : 중앙폭 : 2.2cm



모카 컬러의 패브릭 소재로 ETRO 로고가 디자인된 에트로 헤어밴드로서 안쪽에는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되어 있어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

㉢ Etro 헤어슈슈

소재 : 100% Cotton

규격 : 끈의 폭4cm



에트로 특유의 우아한 색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페이즐리 무늬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와이어가 들어있어서 독특한 형태를 유지한다.

한국인의 머리색에 잘 어울리는 칼라로 포니테일 스타일로 머리를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 (2) 헤어장신구의 디자인경향

현대적 명품 헤어장식의 디자인 경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헤어장식품의 소재의 측면에서 헤어슈슈는 면위주로 선택되고 있으나 버버리의 경우는 면에 합성섬유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밴드는 면과 패브릭이 디자인별로 사용되고 있었고, 안쪽은 스웨이드로 마감하여 부드러운 느낌과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헤어핀의 경우는 패브릭소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동핀으로 안쪽은 스웨이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의 색상을 보면 브라운계통이 많이 사용되어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었고, 문양은 명품인 버버리와 에트로의 고유무늬를 사용하여 명품의 인지도를 최대한 살리고 있었다. 즉 버버리의 경우는 노바체크가 거의 사용되었고, 에트로의 경우는 페이즐리 무늬와 페가수스문양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명품헤어장식은 디자인을 대부분 기존의 명품브랜드에 의존하고 있고, 자연주의적 색상이나 재료의 사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우리전통의 소재와 자연염색을 응용한 디자인이 시장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자연 염색의 일반적 고찰

### 1) 염색의 기원과 종류

염색의 발생은 인류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생활하면서 그 아름다운 색채를 자기적으로 간직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운 색채를 자신이 입고자 하는 의복에 옮기고 싶은 충동이 저절로 일어났을 것이며 이러한 충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직물에 채색을 함으로써 염색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염색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상상하고 추측하여 그 기원을 더듬을 뿐 정확한 실증은 찾지 못

하고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는 섬유유 특성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섬유유 역사는 지금부터 약 1만년전 호상생활민족이 살고 있었던 석기시대에 스위스에 다년생의 마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이 인류의 섬유유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보여진다. 또한 세계 역사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직물은 지금부터 약 5,000년전인 B.C. 3,900년~B.C. 2,980년경의 것으로 마를 원료로 한 식물이며 이것의 원산지는 페르시아 만과 흑해 근처였다고 한다.<sup>16)</sup>

염색과 인간의 장식 등은 인간의 채색본능과 채색이 가해지지 않은 소복(素服)을 착용하고 자연 속에서 수렵·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옷에 묻어난 착색의 형태에서 비롯되었거나, 신체의 상처부위에 천연약재를 바르는 과정, 또는 즙을 내어 끓이는 동안 그릇이나 신체에 염착(染着)된 데에서 발생되었다고 본다.<sup>17)</sup>

이러한 자연염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sup>18)</sup>

첫째, 식물성 염색으로 자연에서 성장한 식물의 잎, 줄기, 꽃, 열매, 심재(芯材), 뿌리 등에서 색소를 추출하여 염색하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동물성 염색으로서 동물의 피, 즙(汗), 자패(紫貝), 오부자나 선인장에 기생하는 벌레(고치닐(cochineal)과 커미즈(kermes)) 등으로 염색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광물성 염색으로 고대 동굴벽화의 채색 시 천연상태로 갈아 썼던 산화물, 황화물의 무기안료(Inorganic pigment : 황토, 연단(鉛丹), 주사(朱砂), 군청(群靑), 감청(紺))와 유기안료(일반적으로 수지(Lake)라 하며 용해한 염료에 조제를 가하여 추출해낸 것)를 가리킨다.

염색에 관한 기록은 「본초강목」,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천공개물」, 「상방정례」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헌을 통해 구별해낼 수 있는 식물염재는 50종 정도이며, 이중 염색·삼중 염색 또는 복합염에 의해 100여 가지의 색채를 만들 수 있어 다채로우며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간색(間色) 색채를 내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조셉 알버스, 서재행역, 「색채구성」, 일지사, 1978.

17) 박명원, “한국인의 색채의식 및 색채교육 연구 : 전통색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71.

18) 김지희 외, “한국의 색깔과 염색공예”, 「전통염색전집」,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p.86.

## 2) 자연 염료와 매염법

우리들의 색채의식은 예로부터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정색(正色)의 사용 관습과 시대에 따라 복색이 사회계급의 표현으로 이어져 왔다. 적색계통과 청색계통은 원시 신앙관에 따라 금기적인 의미나 주술적인 관심으로 인해 모두 동적(動的)인 것이 못되고 소극적이며 정적(靜的)이면서 중성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의, 식, 주의 생활면에서도 전통문화와 한국의 고유 미를 인공미에 가미되지 않은 상태 즉, 자연주의적 소박함을 자랑으로 삼아왔다.<sup>19)</sup> 이 같은 관습들이 우리들의 생활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습관화되어 색채 이용에 대한 창의성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염료와 안료개발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전통의 색채를 물들여 온 자연염료에 관한 연구는 색채의 사용에 관한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 염료는 대부분 그 염재가 지닌 색소, 성분, 시간,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며 매염제에 의해서 더욱 색이 다양해진다. 또한 색소의 성질에 따라 단색성 염료와 다색성 염료를 구분하는데 단색성 염료는 염액 중에 담그면 그대로 물들여지며 하나의 염료에서 단색계열의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색성 염료는 한 종류의 염료일지라도 매염제와의 결합으로 많은 색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 염료 가운데 우리나라의 옛 문헌에 나타난 염제로 사용한 식물의 종류는 50여 종이나 매염제와 염색법에 의해 100여 가지의 색채를 낼 수 있음을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sup>20)</sup>

### (1) 주요 염료 식물

#### ① 쪽(남: 藍)

남 즉, 쪽은 라틴어인 인디컴(Indicum)에서 유래되며, 인도로부터 유입되어 인디고(Indigo)라는 청색염료로 지칭된다. 한편, 「본초강목」에서 쪽은 냇가나 평평

19)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9, p.94.

20) 김지희, “한국민속의 이해”, 국립 민속박물관 특성강좌, 1997.

한 못가에서 자라며 줄기와 잎은 청염에 쓴다고 하였다.<sup>21)</sup> 남(藍)은 쪽빛, 옥색, 반물, 보라등의 색상을 만들어 낸다.

## ② 홍화

홍화는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는 일년생 초목으로 ‘잇꽃’이라고도 한다. 「본초강목」에서 그 꽃은 건조시켜 진홍으로 물들이는데, 5월에 꽃이 피면 차차 커져서 홍색이 되고 이른 새벽에 꽃을 채집, 두드려(紅餅) 익혀서 배주머니에 넣고 물을 걸러짜서 황색의 즙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홍화는 진홍, 연지, 자주빛 등의 색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③ 소방목

소방목은 두과(Leguminosae)에 속하는 낙엽 소방목이며, 소방이라고도 불린다. 「본초강목」에서는 ‘그 산지가 소방국에 있는 섬들임을 비유하여 소방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본래 사람들이 적색으로 염색하는데 쓰인다’고 하였다.

## ④ 치자

치자는 천초과(Rubiaceae)에 속하는 당록관목(當綠灌木)이다. 여섯 장의 꽃잎으로 꽃빛깔의 희고 향기가 높으며 열매를 이용하여 노랑물을 들이는 식용염료이다. 「본초강목」에 ‘그 열매로 물을 들이면 적홍색이 된다.’고 하였다.

## ⑤ 떡

흑색(黑色)을 낼 수 있는 것으로는 떡물이 보편적이다. 갈아 놓은 떡을 묽고 얇게 풀어서 식초와 명반을 넣고 4~5회 반복하여 들인다.

---

21) 이시진, 「본초강목」, 고문사, 1973, p.634.

## ⑥ 양파

양파는 붉은 색 계열을 표현하는 염료로서 갈색의 양파껍질에 물을 붓고 강함 불에 올려놓아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30분가량 끓여서 고운 체로 걸러서 염색한다.

## ⑦ 포도

포도는 낙엽 덩굴손 식물로 과실 과피의 색깔은 품종에 따라 다르나 흑자색이 많다. 이 과피에는 안토시아닌 색소에 속하는 Oenin이라는 색소가 함유되어 포도의 붉은 빛은 이 색소에 기인한다.

## ⑧ 감

감나무의 열매를 이용하여 염색하는 것을 말한다. 7월말에서 10월 중에 감을 채취하여 감꼭지를 따낸 후 감을 곱게 찢거나 믹서에 갈아 물을 1대 1로 넣고 잘 주물러 고운 망에 넣고 꼭 짜서 즙을 내서 사용한다.

### (2) 단색성 염료와 다색성 염료

단색성 염료에는 첫째, 직접성 염료라 하여 치자, 울금 등과 같이 염료에서 가용성 색소 성분을 추출하여 그 염액에 섬유를 담가 염색하는 염료가 있고 둘째, 건염 염료로서 감(監)과 같이 불용성 색소로 돌아가서 빛이나 마찰에 잘 견디는 염료가 있다. 셋째, 염기성 염료로 황벽, 황련 등의 황색염료가 이에 속하고 주성분은 모두 Berberine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염료는 다른 염료와 혼합하여 침전을 일으키므로 명주와 같은 동물성 섬유에는 잘 염착되나 식물성 재료에는 좋지 않다. 넷째, 닭의 장풀, 봉숭아와 같이 이들의 꽃을 채집하여 칠하는 정도로 염색하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는 착색도 나쁘고 수세나 일광에 잘 견디지 못한다.

다색성 염료로는 쪽두서니, 자초, 소목, 상목, 울목, 오배자 등이 있고, 색이 매

염제에 의해서 발색되고 그 색이 여러 색으로 변화되는 매염염료로 식물성 염료는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한다. 이들 다색성 염료의 염색에는 섬유에 금속염을 정착시켜 염료를 발색시키는 선매염법과 재료에 염료로 염색한 후 금속염을 발색시키는 후매염법, 염료와 매염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중매염 방법이 있다.<sup>22)</sup>

### (3) 복합 염색

식물의 종류별 부위에 따른 다양한 간색은 복합염을 이용하여 더욱 미묘한 색상을 창출할 수 있었다. 치자의 황색과 홍색과의 복합염으로 황단이 얻어진다. 녹색을 만들 때는 쪽염색후 황벽염색을 하는 것이다. 밝은 녹색은 쪽에 황벽염색 후에 명반매염을 어두운 녹색은 철매염을 하는 복합염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중국문헌에서도 세 번 들면 분홍빛이 되고 다섯 번 들면 보랏빛, 일곱 번 들면 검은빛이 된다고 복합염을 설명하고 있다.

복합염은 대부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3)</sup>

첫째, 쪽염색의 경우 생엽(生葉)을 이용한 쪽침출액과 침전물의 복합사용과 쪽침전물과 합성쪽의 복합사용으로 쪽염색을 하는 방법이다.

둘째, 대부분 2종이나 간혹 3종의 염재를 사용하여 복합염색을 하는데 어떤 염재는 하염하고 상염하는가 하는 것은 색채의 채도와 명도의 차이를 원하는 정도에 달려있고, 그 사용하는 매염제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4) 매염제에 따른 매염법

매염제는 염기와 산의 중화에 의해 수소와 금속이 바뀌어 놓인 중성의 금속화합물이다. 매염에 있어서 일반적인 매염제는 염색을 도와주는 물질이다. 전통적으로 쓰였던 매염제는 명반(백반)과 잿물, 석회, 철장액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잿물은 태운 재료에 따라 그 용도가 다르게 쓰였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22) 임은자, 「식물성 염료에 의한 염색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38~39.

23) 김지희, 「염료식물재배 및 염적물제작에 관한 연구」, 「산업미술」 4권, 1994, p.115.

염색시 같은 염료에 매염제를 달리 했을 때 염색된 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매염제는 염색을 도와주는 역할과 함께 발색에도 영향을 준다.

명반(백반)은 백색의 결정으로 밝은 색을 내는 유일한 매염제로 알루미늄 화합물이다. 제조방법은 명반을 뜨거운 물에 넣어 녹인 다음 5배의 물을 더해 만든다. 사용시에는 뜨거운 물을 붓거나 잘 저어서 침전되지 않도록 한다. 산(酸)은 주로 즙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수일 전에 오미자 염료와 동량의 분량을 물에 담아 두었다가 우려난 물을 사용했다. 옛날에는 매실을 소금에 절여 나온 즙을 사용했다고 전하며 현재는 구연산, 빙초산을 사용한다. 석회(石灰)는 소석회 또는 생석회를 항아리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잘 저은 후 석회가 가라앉은 다음 그 윗물을 매염제로 사용한다. 석회는 주로 적차색(赤茶色), 갈색(褐色)의 매염에 사용한다.

철장액(鐵漿液)은 주로 머리를 검게 물들이는데 사용했다 한다. 만드는 방법은 무쇠나 녹슨 철조각을 항아리에 담고 식초나 초산을 짙게 탄 물을 넣어 봉하지 않고 1~2주일 방치한 다음 철을 건져내어 사용한다. 시간이 없을 때에는 초산을 더 넣어 충분히 열을 가한 후 5~6시간 지난 다음에 사용한다. 철장액은 주로 어두운 색을 내는데 사용한다. 회즙은 회를 물에 담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가 탕에 녹는 성분만이 이용되는 것이다. 회즙(灰汁)의 사용법은 염료와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을 몇 차례 되풀이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지 않은 회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색직전에 회재를 태워서 불이 다 사워기 전에 시루에 담고 물을 내려서 사용한다.

일반적인 염색의 경우 매염제를 미리 염재에 흡착시키고 여기에 붙이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를 선매염이라 한다. 선매염은 염색하기 전에 미리 매염하는 것으로 일단 매염처리를 하고 나면 수주일 전에 처리한 것이라도 바로 염색할 수 있다. 예로부터 서구에서는 양모가 섬유소의 대종을 이루었는데, 양모의 염색에는 선매염이 바람직하다. 양모의 선매염에는 크롬을 매염제로 사용했는데 크롬 매염을 한 섬유는 빛에 매우 민감하므로 한번에 바로 사용하거나 어둠 속에 보관해야 한다.

중매염은 염액에 매염제를 섞어서 물을 들이는 방법으로 손이 덜 가는 이점이 있으나, 선매염이나 후매염에 비해 견뢰도가 떨어진다. 염색이 끝나면 중성비누나



린스로 확실히 헹궈서 매염제에서 떨어진 산을 잘 씻어낸다. 중매염은 염료와 매염제가 섞여 불용성이 되는 결점이 이다.

후매염은 염재에 염료를 흡착시킨 다음 매염제로 발색시키는 방법이다. 손이 많이 간다는 불편한 점이 있으나, 되풀이 염색이 가능하므로 식물 염색에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양모를 철이나 석으로 매염할 때에도 사용된다.<sup>24)</sup>



---

24) 임형탁·박수형 공저, 「식물염색 입문」,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p.20.

### Ⅲ. 작품 제작 및 설명

#### 1. 제작 의도 및 방법

##### 1) 제작 의도

본인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전통공예에 관심이 많았고 항상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손으로 만들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끼곤 하였다.

오랜 세월 관심 밖에서 잊혀졌던 규방 공예품들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 경제 부흥과 함께 생활 환경이 변화로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구조의 변화로 옛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이다.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출판물 등의 표지에 등장하고, ‘전통 주머니’의 시리즈 캘린더나 ‘조각보’ 종류의 캘린더 등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서 전통 한복과 장신구, 자수 작품들이 계속 이미지 상품으로 개발되었다.

조각보가 미적 구성미를 살린 생활 공예품이라면 주거 공간의 변화와 주거 형태,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조각보는 우리의 실생활과 접목성이 부족하고 단지 전시용이나 전통문화를 살린다는 의미로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이에 본인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조각보를 자투리 천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에서 이 자투리 천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현대의 생활양식과 복식 문화의 발달에 따른 색채 의식을 헤어 장신구에 접목시켜 보고자 시도하였다.

헤어 장신구의 목적이 주술적이거나 신분적 표시 수단에서 생활 공예품으로서 기능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식적인 미적 기능으로 역할이 더 강해지고 있다. 화려한 보석이나 귀금속 위주의 헤어 장신구를 자연 염색의 신비스런 색채를 접목 시켜 우아하고 고급스러우며 예술성이 높은 헤어 장신구로 제작해 보고자

하였다.

자연 염색의 느낌을 이 작은 헤어 장신구 안에서 발견하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었고, 한국을 소개하는 상품으로서의 발전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염제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을 끓여서 염액을 추출하고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명주와 모시 등을 침염 기법으로 하였고, 따라서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색은 우아하면서도 차분하고 신비스런 자연미를 보여주는 색감이다. 이러한 색감을 이용하여 사회 구조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다양화에 현대여성의 헤어스타일에 알맞은 헤어 장신구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 2) 제작방법

본 연구 작품은 자연 염색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자연색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기능적이고 장식적인 의미가 강한 헤어 장신구를 규방공예에 밑바탕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였다.

### (1)염색 과정

#### ① 염료 식물과 매염제 선정

염료 식물이 선정은 생육 과정과 성장 시기에 따라 색이 달라지므로 적합한 염료 식물을 정한다. 동일한 염액이라도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을 얻을 수 있다.

② 염액 추출은 염료 식물을 물에 넣어 끓는 상태를 15분 이상 유지한 다음 고은 천으로 걸러 1차 염액제를 추출한다. 가장 진한 색을 띤다.

걸러 내고 남은 재료에 다시 물을 넣고 끓여 2차, 3차 염액을 얻는다. 회수를 거듭 할수록 색이 옅어진다.

③ 염색방법은 전처리된 섬유를 염료에 넣고 약 15분간 끓는 상태를 유지한다. 염료에 끓인 섬유를 가볍게 헹군 다음 미리 준비된 매염제에 섬유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약 20분 정도 담근다. 발색 정도를 살피면서 고르게 저어준다.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행구어 새 염액으로 재염색한다. 원하는 색이 나오면 4~5회 행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잘 말린다.

④ 녹말풀을 얇게 풀어서 풀을 먹인 후 말려 저온에서 다림질 한다.

## (2) 천조각 잇기

두겹의 조각천을 시접을 접어서 꿰매는 방법으로 촘촘하게 1mm 땀으로 뜬다. 감침질은 한 땀씩 떼야 하므로 실을 너무 길게 꿰면 불편하고 실이 꼬여 끊어진다. 파라핀을 먹인 실을 바느질 할 부분의 3배의 길이로 이용하며 실색은 바느질 색이 잘 보이는 색으로 선택하여 감침질 선을 살리고 가름술로 나누어 다림질하였다.

## (3) 헤어 장신구의 토대에 장식하기

헤어 장신구의 토대는 대부분 금속류나 플라스틱류로서 한지를 이용하여 1차 포장을 한 후 그 위에 조각천을 붙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본드의 양이 많으면 조각천 위로 배어나와 색감을 퇴색시키거나 얼룩이 생긴다. 따라서 최소한의 본드를 이용하여 조각천을 포장했다.

## 2. 작품설명

### 〈작품 1〉 사랑 I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헤어띠밴드



곱창밴드(1)



곱창밴드(2)



헤어핀

작품의 종류 : 헤어띠밴드, 곱창밴드 (1)(2), 헤어핀

디자인 의도 : 사랑의 가장 깊은 의미는 모성애에 있다. 이러한 모성이 삶의 어깨에 무거움을 느껴질 때 살며시 다가와 목을 감싸고 볼에 입맞춤으로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내 아들의 사랑스런 마음을 통해 사랑을 역으로 표현해 보았다.

섬유재료 : 명주

염료 : 홍화염, 소목염, 쪽염, 포도염

매염제 : 알루미늄, 동, 철

바느질기법 : 규방공예의 감침질법, 흠질

제작기법 : 본드로 붙이기

〈작품 2〉 사랑 II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헤어띠밴드



헤어핀



곱창밴드



뒤꽂이

작품의 종류 : 헤어띠밴드, 헤어핀, 곱창밴드, 뒤꽂이

디자인 의도 :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고 기쁨을 줍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을 은은한  
 홍색과 파란색으로 화사하게 표현해 보았다. 이작품의 포인트는  
 박쥐리본으로 복을 기리면서 만들어 붙인 선인들의 후손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

섬유재료 : 명주

염료 : 소목염, 소목과 치자의 복합염료, 포도염료, 쪽염료

매염제 : 알루미늄매염제, 동매염제, 철매염제

제작기법 : 규방공예의 조각천 잇기, 박쥐리본 만들기, 바느질 기법은 감침질이며  
 장신구 틀에 옷입혀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작품 3〉 그리움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헤어스카프



머리띠



헤어핀



뒤꽂이

작품의 종류 : 헤어스카프, 헤어핀, 뒤꽂이, 머리띠

디자인 의도 :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때때로 떠오르는 것은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이다. 이러한 어린시절을 붉은 색 계통으로 표현해 보았다. 때때웃이나 색동저고리를 머리맡에 놓고 잠 못 이루던 설날의 그리움과 평화로움을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섬유재료 : 명주

염료 : 홍화염료, 소목염료, 쪽염료, 치자염료, 포도염료

매염제 : 알루미늄매염제, 동매염제, 철매염제

제작기법 : 규방공예의 조각천 잇기 기법으로 염료의 색상과 대조인 색실을 이용하여 감침질 기법이 눈에 띄게 하였다.

〈작품 4〉 제주의 四季 - 봄의 소리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머리띠



헤어스카프



곱창밴드



뒤꽂이

작품의 종류 : 머리띠, 헤어스카프, 곱창밴드, 뒤꽂이

디자인 의도 : 봄은 개나리의 노란색이 대지를 뒤덮으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노랑의 물결을 헤어장식에 황색계통으로 표현하였다. 땅 밑으로 흐르는 봄기운이 바람에 묻어 왔다가 사라지는 소리처럼 봄을 기다리는 제주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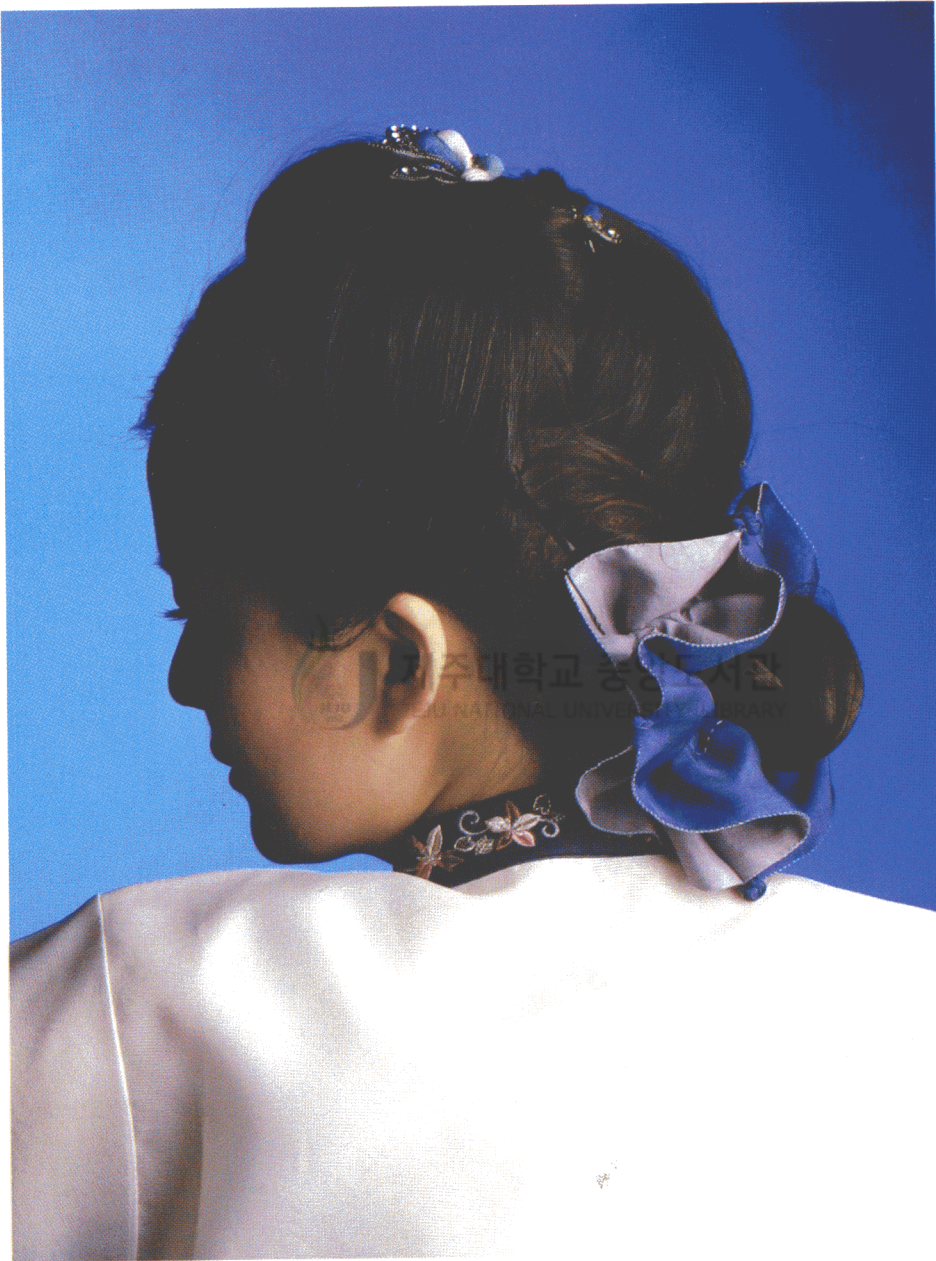
섬유재료 : 명주

염색 : 치자염료, 쪽염료, 양파염료

매염제 : 알루미늄매염제, 동매염제, 철매염제

제작 기법 : 규방공예의 조각천 잇기로 감침질을 이용했으며, 장신구 틀에 옷입혀 붙이는 기법으로 했다.

〈작품 5〉 제주의 四季 - 여름의 향연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곱창밴드



머리띠



뒤꽂이



헤어핀

작품의 종류 : 곱창밴드, 머리띠, 뒤꽂이, 헤어핀 등이다.

디자인 의도 :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젊음은 청색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청색의 젊음을 제주의 푸른 바다와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즉 진한 청색과 연한 청색의 조화로운 제주의 맑고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의 느낌을 젊음으로 표현하였다.

섬유재료 : 명주, 모시

염료 : 쪽염, 포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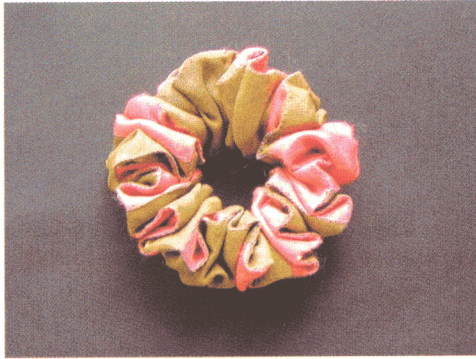
매염제 : 알루미늄매염제, 동매염제, 철매염제

제작 기법 : 규방공예의 조각천 잇기의 감칠질법과 박쥐 리본을 만들어 붙였으며, 장신구 틀에 붙이는 기법으로 했다.

〈작품 6〉 제주의 四季 - 한라산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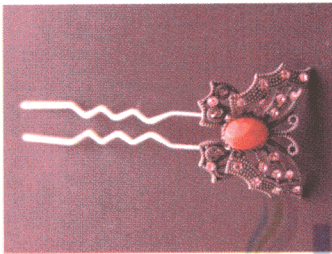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곶창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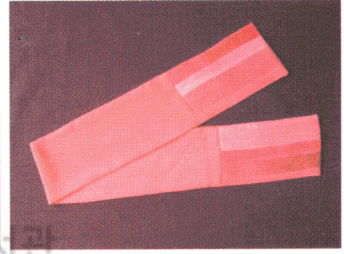
머리띠



뒤꽂이



실핀



헤어스카프

작품의 종류 : 머리띠, 곶창밴드, 뒤꽂이, 실핀, 헤어스카프 등이다.

디자인 의도 : 푸르던 한라산에 가을임을 알리는 붉은 단풍의 물결을 진한 홍색의 머리밴드 장식으로 표현해 보았다.

섬유의 종류 : 명주

염료 : 소목염료, 치자염료

매염제 : 철매염제, 동매염제, 알루미늄매염제

제작기법 : 규방공예의 조각천 잇기를 감침질로 했고, 장신구 틀에 옷입혀 붙이기 기법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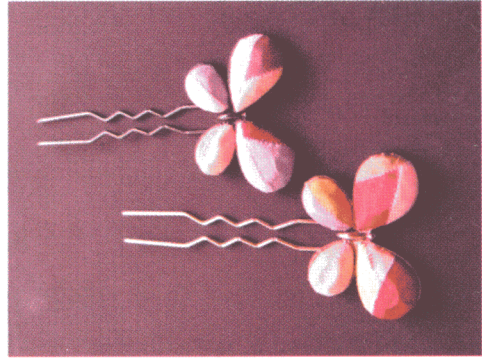
〈작품 7〉 제주의 四季 - 겨울이야기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머리띠



뒤꽂이



헤어핀



실핀

작품의 종류 : 머리띠, 뒤꽂이, 헤어핀, 실핀 등이다.

디자인의도 : 추운 겨울 시골집 아궁이에서 구워 나올 고구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아이의 마음을 담았다. 시골집의 겨울은 정적속에 움직이는 삶이 있다. 이러한 겨울 풍경을 은은한 갈색계통과 홍색계통의 조화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섬유재료 : 명주

염료 : 먹, 쪽염료, 소목염료, 포도염료, 양파염료

매염제 : 알루미늄매염제, 동매염제, 철매염제

제작기법 : 규방공예의 조각천 잇기를 감침질로 했으며, 장신구 틀에 옷 입혀 붙이는 기법을 이용했다.

## IV. 결론

인체를 장식하고 보다 나은 외모의 아름다움 추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고대나 현대에도 변함없는 인간의 속성이다. 헤어 연출의 다양한 장신구 효과는 시대의 상황과 유행에 따라 형태와 질감, 색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날 장신구에 의한 다양한 헤어 연출 방법이 대중성에 치우치고 있으며, 서구 장신구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강조하는 획일화된 장신구는 개성위주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헤어 장신구의 재료는 미적 조형 형태만을 강조하면서 재료의 성질과 감각이 소비자의 자연주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즈음 자연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고가 부각되면서 천연 소재인 자연 염색은 이러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헤어 장신구 또한 천연적인 소재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헤어 장신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규방공예의 조각보 조형성을 이용하여 자연 염색한 자투리 천을 재활용하고 현대의 생활양식과 복식문화에 따른 색채의식과 예술적 가치를 헤어 장신구에 접목 시켜서, 서구의 장신구에 우리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새로운 헤어 장신구 디자인을 본인의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와 작업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전통공예의 조형미와 서구 장신구 디자인의 조형성이 어우러져 헤어장신구의 기능과 미적 감각이 한층 더 돋보임을 알았다.

둘째, 자연 염색한 섬유의 색채와 질감을 헤어 장신구의 미적 조형 형태로 구체화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차분하고 우아한 색감이 헤어 장신구의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섰음을 알았다.

셋째, 모발의 자연적인 색채와 자연 염색 섬유의 색감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자연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논리를 발견하게 하였다.

넷째, 자연염색의 색감을 이용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다양화로 현대여성의 헤어스타일에 알맞은 헤어장신구 디자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섯째, 자연염료를 이용한 장신구들은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고 정감이 가며 외국의 어떤 브랜드에도 뒤지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자연염색을 이용한 헤어장신구 개발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문화의식을 새롭게 하고 예술적 조형 가치를 높였으며 전통공예를 현대공예에 접목시켜 새로운 느낌으로 표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헤어장신구는 물론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 토탈 패션의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소재와 디자인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자연염색을 이용한 헤어 장신구의 다양한 영역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김미경, “현대 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 경향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미노, “오피아트 패턴분석을 응용한 장신구디자인 연구”, 단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소영, “한국 전통 문양을 이용한 장신구 조형 연구 : 아르누보 양식과 전통 문양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명원, “한국인의 색채의식 및 색채교육 연구 : 전통색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박성숙,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 패션 잡지 화보를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손희정, “전통 문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 머리장식을 중심으로”,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우인영, “조선후기와 아르누보에서 나타난 여성용 수식품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선옥, “끈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재영, “착시(Optical Illusion)의 조형요소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주현, “귀금속 헤어장신구 디자인 연구 : 인터넷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청자, “히피 패션에 나타난 히피 헤어스타일 분석 : 2002 S/S 패션컬렉션을 중심으로”,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화정, “자연염료와 닥종이를 사용한 한국화 표현기법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전옥주, “Hair로 인한 image 창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영호, “자연염료를 사용한 회화적 표현기법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원정, “에스닉(ethnic) 스타일을 응용한 속옷 디자인 연구 : 20세기 초기를  
중심으로”, 동덕여대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